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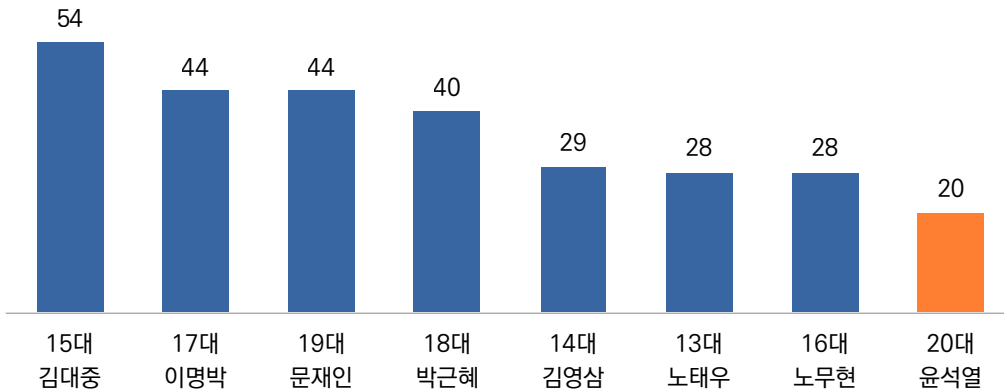


## [대통령 지지도 분석]

### 13~20대 역대 대통령 중 '윤 대통령' 지지도, 임기 반환점 시점에서 가장 최저!

- 지난 주 기준 대통령 지지도(국정 수행 능력 평가)가 드디어 20% 벽이 깨졌다. 한국갤럽에서는 주기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 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도가 19%까지 떨어진 것이다.
- 이와 관련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임기 반환점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54%로 1위였고, 현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 지지도를 나타냈다.

[그림]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 ('잘하고 있다'\* 응답률, 임기 반환점 기준, %)



※출처 : 한국갤럽, 제525호~569호 2023년 월별/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

\*역대 대통령 평가는 모두 동일 질문 방식 적용(2점 척도: 잘하고 있다, 잘못하고 있다)

\*\*2013년 18대까지는 2월, 2017년 19대부터 5월 취임. 이후 재임 연차별 1분기는 그해 4~6월 기준

\*\*\*윤석열 대통령 3년차 3분기는 10월(3회 평균 총 3,007명) 평균치임

## 윤 대통령, 전통적인 지지 강세층인 70세 이상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!

-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2024년 10월 현 시점에서 연령별,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. 40대는 '잘하고 있다'는 응답률이 채 10%도 안되는 8%에 불과하였고, 기존의 강세 지지층인 70세 이상층도 부정평가(45%)가 긍정평가(41%)를 앞질렀다.
-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지지도 30%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는데, 전통적인 보수정당 강세지역인 '대구/경북'과 '부산/울산/경남'에서도 지지도가 25%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.

[표] 연령별/지역별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(2024.10월 기준\*, %)

		잘하고 있다	잘못하고 있다	어느 쪽도 아님/ 모름/응답거절	계
전체		20	70	9	100
연령별	18~29세	15	65	20	100
	30대	13	76	11	100
	40대	8	88	4	100
	50대	16	80	4	100
	60대	29	63	8	100
	70세 이상	41	45	14	100
지역별	서울	21	70	8	100
	인천/경기	17	74	9	100
	강원	19	71	10	100
	대전/세종/충청	26	63	10	100
	광주/전라	9	85	6	100
	대구/경북	25	61	14	100
	부산/울산/경남	25	64	11	100

※출처 : 한국갤럽, 제525호~569호 2023년 월별/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

\*합계가 100%가 안 맞는 것은 라운딩 에러로 인한

\*\*지역 중 제주는 표본 수가 적어 제외함

##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, 외교→경제/민생/물가→김건희 여사 문제로 옮겨가

-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직무 수행의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. 2024년 10월인 현재와 직전 2개년도(2022, 2023년)를 동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, 2022년에는 '외교(13%)', '경험·자질 부족(13%)'을, 2023년에는 '경제/민생/물가(19%)'를 1순위로 꼽았는데, 2024년 10월 현재는 '김건희 여사 문제(15%)'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[표] 현직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(자유응답, 동월 대비, 7순위까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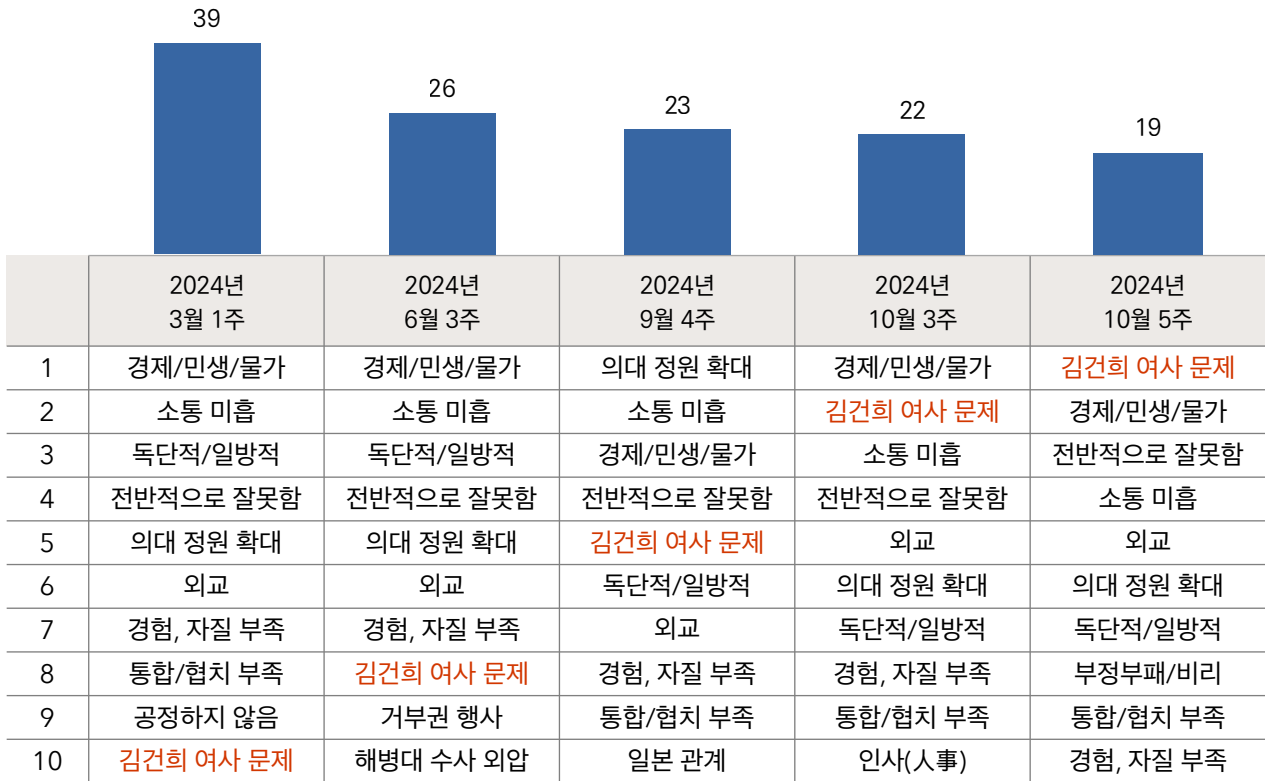
	2022.10	2023.10	2024.10(현재)
1	외교(13%)	경제/민생/물가(19%)	김건희 여사 문제(15%)
2	경험, 자질 부족/무능함(13%)	외교(10%)	경제/민생/물가(14%)
3	경제/민생(10%)	독단적/일방적(9%)	소통 미흡 (9%)
4	전반적으로 잘못함(9%)	소통 미흡(7%)	전반적으로 잘못함(7%)
5	독단적/일방적(5%)	통합 협치 부족(5%)	외교(5%)
6	소통 미흡(5%)	전반적으로 잘못함(4%)	독단적/일방적(5%)
7	발언 부주의(3%)	인사(4%)	의대 정원 확대(3%)

※출처 : 한국갤럽, 제525호~569호 2023년 월별/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

## 김건희 여사 문제 부각될수록 윤 대통령 지지도는 비례하여 하락!

- 앞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는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지지도와 김건희 여사 부정평가 순위 간에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. 올해 3월 초 '김건희 여사 문제'가 부정평가 10위에 올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39%였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의 부정평가 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지도 역시 하락하여 '김건희 여사 문제'가 1위를 기록한 2024년 10월 5주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19%까지 떨어진 것이다.

[그림] 현직 대통령 지지도와 부정평가 이유 (%)



※출처 : 한국갤럽, 제525호~569호 2023년 월별/연간 통합 등 해당월 발간 데일리 오피니언 리포트